

목포항구축제, 온라인 속에서 성료

참여·시청형·이벤트 형태 다양한 프로그램 호응 목포시 유튜브 구독자 38% 증가 등 가능성 열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목포항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면서 목포시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목포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으로 중계한 항구축제는 참여형 프로그램, 시청형 프로그램, 이벤

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경제 이벤트는 온라인 실시간 참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끈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TV홈쇼핑 등도 지역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목포를 알리는 문제로 짜

여진 목포파시퀀스, 코로나 장기화로 활동 무대가 좁았던 지역예술단체 공연 등도 펼쳐졌다. 목포시립예술단과 목포의 관광명소에서 제작한 '온라인 버스킹', 유명 여행 유튜브와 함께 목포의 데이트 코스를 돌아보는 '목포 랜선투어', 목포의 유명 맛집 셰프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영상을 제공하는 '목포 맛, 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은 목포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된 축제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지친 일

상을 위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 유튜브 구독자가 38% 이상 증가하는 등 공간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내년에는 코로나 걱정 없이 현장에서 목포만의 매력을 느끼는 열기와 흥미 가득한 축제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 사인머스켓' 홍콩 첫 수출길

함평군, 해외 나비골농협서 상차식...500상자(1톤) 선적

함평군의 지역특화작목인 '함평 사인머스켓'이 홍콩으로의 첫 수출길에 올랐다. 함평군은 14일 "함평 사인머스켓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이 14일 오전 10시 30분 함평군수와 김용오 함평꽃무릇수출포도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나비골농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첫 수출 길에 오르기 위해 선적된 사인머스켓 물량은 약 500상자(1톤)이다. 그동안 군은 국내 사인머스켓 재배농가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에 대비, 사인머스켓 수출단지를 조

영암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영암군은 지난 12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검사는 전면 시행 중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하고, 최근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는 4,800만원을 투입하여 학교급식, 대형마트 등 친환경농산물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 신청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건당 최대 15만원 내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료는 농가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에 전달해야 한다. 잔류농약 검사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분석실에서 잔류농약 320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해주시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군도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진에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열목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식 개최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신안군은 10월 14일 흑산면 대둔도 도목 마을에서 열목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준공식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치러졌다. 열목마을은 흑산면 북쪽 섬인 대둔도 도목리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진입도로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없

어 주민들과 청년들이 마을을 떠나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었다. 이에, 신안군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사업비 660백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연장 326m, 폭 4m로 확장하였으며, 위험 구간 추락방지를 위해 가드레일 220m를 설치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량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열목 도로 준공으로 마을을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이루길 희망한다"며 "작은 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이영주기자

무안군, 하천 정비로 재해 대비 철저

114억 투입해 하천 55개소 정비·퇴적도 준설사업 추진



무안군은 관내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소하천 157개소에 연

장 236km, 지방하천 17개소에 연장 152km, 국가하천인 영산강이 연장 133km로 총 연장 521km로 관내 대부분 지역이 하천과 인접해 있어 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무안군은 올해 114억 원을 들여 하천 55개소의 정비사업과 퇴적도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왔다. 또한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올해 청천천 등 총 3개소 연장 6.77km에 제방보축공사 등을 통하여 하천 범람을 막고, 제방도로를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안=이성기기자



영광군, 2021년도 청렴 콘서트 개최

영광군은 지난 15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신리받는 청렴 영광군 실현을 위한 2021년 청렴 콘서트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다. 현장에는 김준성 군수를 비롯한 신규 공직자 30명, 그 외 군산하 전 공직자는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극 참여했다. 공연 프로그램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보다 쉽게 다가가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구성됐다. 공직자의 청렴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훈항가를 청렴의미로 재해석한 판소리마당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의 고민을 상황극으로 표현한 연극공연,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등이 펼쳐졌다. 기존의 주일식 청렴교육 보다는 자연스럽게 청렴을 체감하는 공직자 청렴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영광=서희경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살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